

영암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One-Point 말씀 통합 교과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우리

2026 사순절 말씀 묵상

사순절1 2월 22일

로마서 1:2-4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순절2 3월 1일

마태복음 4:23-25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 예수님”

사순절3 3월 8일

마가복음 6:30-44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사순절4 3월 15일

마태복음 14:22-33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사순절5 3월 22일

마태복음 16:13-20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종려주일 3월 29일

마태복음 21:1-11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주일 4월 5일

요한복음 20:1-18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2026년 사순절 말씀묵상



사순절 통합 말씀 묵상 안내

- 01 시간을 따로 내어 그날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환경이 허락되어 소리 내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 02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 03 말씀요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소모임에서는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 말씀 요약과 나눔 질문을
함께 나눠주세요.
- 04 한줄 기도문을 작성하신 후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사순절 첫째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2월 22일

로마서 1장 2-4절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순절 둘째 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 예수님

3월 1일

마태복음 4장 23-25절

-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 25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순절 셋째 주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3월 8일

마가복음 6장 30-44절

-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
-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 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졸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 35 때가 저물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거니
-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본문 말씀

- 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 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 42 다 배불리 먹고
-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사순절 넷째 주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3월 15일

마태복음 14장 22-33절

-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순절 다섯째 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3월 22일

마태복음 16장 13-20절

-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본문 말씀

-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종려주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3월 29일

마태복음 21장 1-11절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본문 말씀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

4월 5일

요한복음 20장 1-18절

-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 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 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 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 7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 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 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갓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하라 하시니
-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로마서 1장 2-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롬 1:3-4)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지라도 한 사람의 모습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를 오해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참 신이신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 나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은 고대 교회 시대로부터 계속된 중요한 논쟁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새드엔딩보다는 해피엔딩을, 악당의 승리보다는 슈퍼 히어로의 승리에 열광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 이전에 죽음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희노애락과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 22:44).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기쁨이 더욱 값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찾아옵니다. 하강이 있을 때 비로소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롬 8:17).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영광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넉넉히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와 기쁨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눔

1.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나누어 보세요.
2.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삶 속에서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어 보세요.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한줄기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 단어인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형식주의 아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나 일시적인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에 있음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지금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로마 황제의 승전 소식보다 더

강력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해방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는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언급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 병자들은 당시 공동체에서 '저주받은 자'로 취급받으며 소외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 만지셨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큰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 실재(實在)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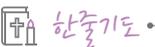
나눔

1.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던 경험이 있다면 묵상해봅시다.
2.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0-44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막 6:41)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의 결핍 앞에서 '계산하는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고, 빈 들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모두 먹일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이토록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시선을 결핍에서 기적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지극히 작은 도시락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보잘것없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음식은 떼어 나누어 줄수록 풍성해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셈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을 넘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확증하며, 나의 작음이 주님의 크과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빈 들'과 같은 부족함의 위기를 만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신앙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통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주님이 떼어 주신 떡을 받아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1. 나의 인생에서 '빈 들'과 같이 부족하고 막막했던 순간, 주님은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2.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한줄기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2-33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 14:27)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예수님 없이 떠난 제자들의 배는 거친 파도에 위태롭게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거세게 흔들릴수록 제자들의 마음도 걸잡을 수 없이 흔들리며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불안으로 마음의 중심을 잃는 순간, 우리 눈에는 불안한 요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손길, 따스한 말 한마디조차도 의도된 뜻대로가 아니라, 왜곡된 시선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배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장의 상황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는 눈, 곧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임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불안해져도,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못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도 하고,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실망하여

화를 내거나, 그들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시며,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마디는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흔들리고, 불안정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주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것을 허락해주셨듯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야 할 그 불안정한 길 위로 우리를 초대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다. 매일 흔들리지만, 매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

1. 풍랑을 만난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파도’는 무엇인가요?
2. 제자들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실까요?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한 줄 기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3-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평판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소문을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16절)

베드로의 고백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그의 지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 승리의 약속입니다. 죄와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통이 우리를 누르려 해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 하늘나라의 열쇠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나눔

1.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싶나요?
2.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나요?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한글기도

종려주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1-11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 21:9)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마 27:37)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자 구약 예언서가 증언한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에 탄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왕의 오심을 크게 기뻐할지라'고 청중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된 짧은 기도문,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헬라어(그리스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겹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지배 계층의 착취로 인해 삶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칭송하며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왕으로 맞이했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왕의 길이 아님을 확인한 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너진 삶을 세우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님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물질적 축복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문제의 해결, 곧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인애와 정의가 넘치며 또한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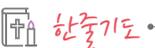
나눔

1.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가장 강하게 옹아매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2.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할까요?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한글기도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르니라 (요 20:18)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 부활의 새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슬픔과 상실 속에 무덤을 찾아간 한 여인의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한 사람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의미와 소망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녀는 주일 아침, 어둠이 남아 있는 시간에 무덤을 찾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더 큰 상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상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셨지만, 그 분인지 알아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고 “랍오니”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부활은 설명이나 증거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경험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붙잡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보내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부활을 만난 사람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파송된 증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은 눈물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리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고, 때로는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눈은 열리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1.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소망을 회복한 마리아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내가 주를 보았다”는 고백이 나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Passage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는 무엇인가요?

God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Me 나는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한글기도

memo

memo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7길 66 Tel.924-6798 Fax. 927-9009
www.youngahm.kr